

농경 유적 '대규모 취락 문화'·장고분 등 다양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16일 광산구 신창동 유적지에서 열린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광주 유치 희망 선포식'에 참석해 민형배 국회의원, 신창동 주민들과 유치 희망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지역 마한 관련 문화유산

신창동 유적, 국가 사적으로 지정 비야·하남·동림 등 취락도 주목 6세기 말기 장고분, 광주 중심 분포 "뚝문화 중심지, 마한 세계화 기대"

광주에는 농경 중심의 취락·생산(가마, 제철)·영산강 교역 등이 이뤄진 '고대 도시' 형태의 마한(馬韓) 생활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취락 문화', '장고분' 등은 광주지역 마한 문화유산의 주요 특징으로 꼽힌다.

26일 광주시가 호남문화재연구원에 의뢰한 '광주시 마한역사문화 정비·활용 계획 수립 용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광주시와 전남도 11개 시·군에 분포한 마한 관련 역사 문화 유적은 620개소다.

이중 국가·지방 지정 관리 유적은 64개소로 전체 10.3%에 해당하고 분묘 유적이 55개소(85.9%)로 가장 비중이 높다.

광주시에 있는 마한 연관 유적은 103개소(16.6%)로 나주(155개소·25%)에 이어 두번째로 많지만, 이중 지정 문화재는 5개소로 7.8%에 불과하다. 광주의 취락 문화 위주 마한 유적은 지상에 노출되지 않아 가치가 저평가됐고, 도시화 과정에서 건설 공사로 멸실된 사례도 많다.

광주의 대표적인 마한 관련 유적은 신창동 유적, 월계동 장고분, 명화동 장고분 등이다.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제375호)으로 지정된 신창동 유적은 광산구 신창동 512-1번지 일대로, 총면적이 26만715㎡에 달한다. 이곳은 기원전 1세기에 형성된 대규모 농경 유적으로 알려진 곳이다. 벼 농사를 기반으로 하는 생산·생활, 무덤의 실상을 알려주는 거대한 복합 농경 부지로 평가받았다.

신창동 유적은 한국 고고학을 이끈 김원룡 선생이 1963년 옹관묘를 발굴하며 최초로 알려졌다. 이후 1992년 국도 1호선 도로개량공사에 따라 국립광주박물관이 수행한 긴급 조사로 발굴됐다.

특히 1995년 이후 1997년까지 본격적으로 이뤄진 저습지 조사에서 대형 기둥

위에 세워진 수변 건물과 농기구 등 목제품, 현악기, 베틀, 수레바퀴 등이 출토됐다.

수차례 조사를 통해 신창동 일대는 마한 시기 생산과 생활, 분묘가 결합한 대단위 복합 유적이 밝혀졌으며 마한 주거와 생산 문화의 실체에 한발 접근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나라 최초 저습지 유적으로 학술·문화적 중요성이 인정돼 1992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됐다.

또 비야동 유적, 행암동 유적, 신창동 유적의 마한 가마 발굴 조사를 통해 토기 생산과 유통 문화를 확인했다.

이 밖에도 3세기 중반 형성된 취락지구인 하남지구, 영산강·황룡강 수계를 따라 형성된 취락·생산 복합유적인 평동지구, 고분과 마을이 함께 확인된 대형 취락지인 동림지구 등이 광주에서 확인된 대규모 마한 유적지로 꼽힌다.

광주지역 마한 고분은 6세기 마한 말기에 형성된 장고분이 대표적이다. 광주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온전한 형태를 갖췄다는 특징이 있다.

광주시 지정 문화재인 월계동 장고분은 1992년 해당 지역이 첨단과학산업단지조성되는 과정에서 주목받았다.

무덤의 구조와 형태는 일본 전방후원분과 유사하지만 당시 광주의 독자적인 마한 문화를 보여주는 유물이 출토돼 학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또 다른 시 지정 문화재인 명화동 장고분은 광산구 명화동 175번지 일대에 있다.

광주시는 사료 부족과 연구 미비로 소외됐던 마한의 가치를 '고대사의 뿌리'로 재조명하고 마한 역사를 세계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 마한은 6세기 초까지 독자적 세력을 유지하며 독특한 문화를 영위해왔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문화유산을 가졌다"며 "광주가 1시간 이내 아시아 주요 도시들과 교류할 수 있는 아시아문화의 중심지인 만큼 고대 마한의 역사 문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세계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ilbo.com

▶ 광주는 신창동 유적을 비롯한 다수의 복합유적의 역사적 가치가 입증돼 나주와 영암에 비견될 만큼 마한 중심지로서 면모를 보인다.

여기에 더해 풍부한 연구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시민의 접근성이 쉽다는 점에서 광주시에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가 건립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가 광주에 설립되는 것은 광주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고 시민이 향유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최근 마한이 역사교과서에 3줄만 기록된 것에 반해 가야는 3쪽 분량으로 가야사에 대한 인지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마한사가 가야사 연구에 비해 소외된 것은 학술적 연구가 부족한 면이 크며, 지자체와 시민의 관심이 부족했던 면도 있었다. 아시다시피 마한은 문헌 기록이 매우 부족해 고고학 자료만으로 마한사를 연구하는 실정하기에 체계적인 학술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마한유적체험관'에 많은 사람이 가족과 함께 체험하면서 마한 문화와 역사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에 마한 연구를 조사와 연구 부문으로 나눠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조사 부문은 마한 유적 및 유물자료 집

대성, 정밀지표조사 및 학술 조사를 통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는 등의 마한역사문화권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이를 통해 주요 유적지를 사적으로 승격시켜야 한다. 연구 부문은 연구 주제와 분야별로 국내외 공동 연구 및 국제 학술대회를 자주 개최해 마한의 실제 연구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시민답사 및 교양강좌, 체험을 통한 교육과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궁극적으로 마한 역사가 역사교과서에 많은 부분이 반영돼야 하기에 전남과 전북의 협력 속에서 광주의 마한 역사교과서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통해 광주 시민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마한역사문화권의 조사와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뤄진다면 광주를 비롯한 전남과 전북의 마한 역사문화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가능할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광주시의 정책개발과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묻혀있던 광주지역 마한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새롭게 설정된 '마한역사문화권'이 광주 시민의 삶과 미래의 광주발전을 위해 어떤 의미를 지닐 것인지는 우리가 마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향유하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2022년도 중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포함) 배출자는 2023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동영상 메뉴얼

☑ 신고방법 등 세부사항은 폐기물처분부담금 누리집(홈페이지)을 참조해주세요. (www.budamgum.or.kr)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처리의무자(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제도(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폐기물처분부담금 콜센터
032-590-5093

폐기물부담금제도

동영상 메뉴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제도 교육자료

환경정보장제도

제도 안내 동영상

← 자원 순환 제도 →